여수 여성문화회관, 제2기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기능·취미·야간반 등 37개 강좌 운영… 6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에서 6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능·취미·야간 과정 등 총 37개 강좌로 운영된다.

세부 과정은 ▲컴퓨터활용, 생활한복, 생활양재 등 기능반 8개 과목 ▲노래교실, 데생, 우쿨렐레 등 취미반 17개 과목 ▲데일리브런치요리, 챗GPT따라하기, 방송댄스 등 야간반 12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밸리댄스, 소도구필라테스, 여성합창, 체형교정발레 4개 과목은 여성 전용 수강 과목이다.

모집인원은 573명이며, 오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과목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 교육·강좌 메뉴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3주 과정 기준 기능과정 4만5천 원, 취미과정 3만 원이며 전액 선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등은 1개 과목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061-659-4173)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취미·야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과정부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고르게 편성됐다.

야간반 운영으로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일부 과목은 여성 전용으로 운영돼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빠른 신청이 중요하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최대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과정별로 합리적으로 책정돼 부담을 줄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수강료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이유빈 기자

제2기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350억 규모 '2026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찾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2026년 순천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순천시 청소년 인구의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했다.

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총 5개 영역, 50개 사업, 350억 1,200만 원 규모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며, 15개 부서가 협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무인수납기 지방세 납부 서비스 재개

광양시가 5월 12일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본청과 읍면동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시스템 업데이트와 점검을 거쳐 본청 ▲세정과 ▲징수과를 비롯해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등 11곳에서 무인수납기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인수납기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기다.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사업자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납부 대상 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할 항목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특히 은행 창구나 일부 납부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부 수수료 부담이 없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수납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세무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안전관리위 개최…장미축제 안전계획 심의 및 점검 보고

전남 곡성군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제3회 곡성군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창모 부군수(군수 권한대행)를 비롯해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등 관계기관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인파 밀집, 화재 및 폭발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테러, 교통대책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군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축제 개최 전 가설건축물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추진 중인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건설현장, 전통시장, 수상레저시설, 농어촌민박 등 총 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전문 점검 장비 활용, 안전 점검 책임제 및 주민 신청제 운영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곡성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보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불교연합회, 구례군 이웃사랑 성금 5백만 원 및 성품 백미(1,000kg) 기탁

전남 구례군은 최근 구례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백만 원과 백미 1,000kg(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과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구례불교연합회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오수미 구례부군수는 "매년 변함없는 나눔과 자비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큰 온기를 전해주시는 구례불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과 성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과 자비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달된 성금과 백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계획이다.

구례불교연합회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불자들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했다.

이번 활동은 종교적 가치를 넘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심선섭 기자